

# 88년 사료산업 전망



일시: 1987년 11월26일 오후3시  
 장소: 본회 회의실  
 참석자: 김정인(신촌사료전문)  
           김치영(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과장)  
 사회: 노영한(본지편집국장)  
 정리: 김용화(본지 기자)

**사회:** 양계산업의 변화와 더불어 사료산업에도 지난 87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 지나간 일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잘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간다면 양계산업이 불안한 기반을 청산하

고 안정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리라는 차원에서 사료업체의 87년을 돌아보며 양축가에게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자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빌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과장님이 배합사료를 중심으로 현황분석부터 말씀해 주셨

으면 합니다.

## 전년대비 18.6% 생산량 증가할 듯

**김치영:** 87년 10월추정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910~920만톤으로 86년대비 약 18.6%가 증가를 했습니다. < 표1 참조 >

우리나라는 사료생산을 대별해서 사료협회와 축협이 있는데 사료협회가 20%증가했고 축협이 13.5%가 늘었습니다. 배합사료가 증가한 원인은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합사료가격이 인하한 때문이고

(표 1) 축증별 생산대비 누계 \* 자료: 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단위: 톤)

구분	'87. 1-87. 10 (A)	'86. 1-87. 10 (B)	전년누계대비 A / B (%)
양계	2,429,479	2,172,275	111.8
양돈	2,381,608	1,718,443	138.6
낙농	1,140,560	982,257	116.1
비육	1,387,207	1,330,495	104.3
기타	40,508	19,674	205.9
계	7,379,362	6,223,144	118.6

다음은 축산경기가 2~3년생산비선을 웃돌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비육용 사료는 정체되어 있긴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료생산량이 피크에 다 있습니다.

**사회:** 87년에 곡물사용을 제한하여 강피류 같은 원료의 사용증가는 어땠습니까

### 배합사료에 곡류사용비를 매년 떨어지

**김정인:** 곡류원료를 제한하면 이론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료가 될 수 있으니까. 효율을 고려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이 약간 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류사용비율이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피류 사용이 매년 늘었고 부족되는 에너지를 우지같은 것을 넣고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이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곡가 시대에 곡류사용량 줄어드는 기현상 나타나

**김치영:** 김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86년도에 와서 곡류사용비가 60%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67%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료 행정이라 할때 사료곡물 사용상에 문제점입니다. 이말은 83년 이후(정확히 84년 초반부터)저곡가시대로 접어들어 곡류사용이 늘어야 정상인데 사료곡물자체가 외화를 소비하는 요소라는 분위기가 일어 수입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여 공장은 공장대로 곡물사용이 제한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저곡가시대로 접어들면서 값이 싼 곡류를 많이쓰고 기타 강피류는 줄이는 패턴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옥수수가격의 80년부터 86년까지의 가격은 표3) 과 같습니다.

이런추세라면 옥수수와 같은 곡류사용을 극대화시켜서 사료원가를 내려줘야 하는데 인화정책에 역행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손해가 국내 양축업자한테 돌아간 셈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외화낭비가 더 커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축산정책을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오다가 갑자기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생산과 공급을 늘려나가다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수요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무리없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생산을 줄여 축산물의 과잉생산을 막겠

(표 3) 옥수수 가격

연도	가격 (\$)
1980	\$ 170
81	166
82	128
83	156
84	154
85	129
86	130
평균	140.70

(표 2) 사료조절 단계별 원료사용

단위: M/T, %

구분	원료별	한					국	
		일 본	곡 류	곡 류	강 류	식물성비류	동물성단백질	기 타
'83	수 량	65.7	3,894,958	666,562	832,081	127,280	350,453	5,871,334
	구 성 비		66.3	11.3	14.2	2.2	5.9	100
'84	"	66.2	3,999,926	799,896	737,167	133,238	354,357	6,004,584
	"		66.6	13.0	12.3	2.2	5.9	100
'85	"	66.6	4,094,628	1,000,153	847,858	124,121	401,226	6,467,986
	"		63.3	15.5	13.1	1.9	6.2	100
'86	"	67.0	4,617,159	1,329,495	1,093,845	143,788	508,548	7,692,835
	"		60.0	17.3	14.2	1.9	6.6	100

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의 사료생산은 18.6%나 증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물 구매에 자율성 부여해야**

**김치영:** 공무원이나 그 밖의 축산 행정 담당자들이 고의로 축산업이 안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견해이지만 지금까지 행정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나 축산생산자들의 건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곧바로 받아들여야하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일례로 사료 원료시장을 하루에도 몇번 가격이 바뀔정도인데 옛날에 세운 정책만을 고수하다보니 값싼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자에게 싼값에 사료를 공급해줄 수 있는데도 제도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사회:** 그러면 금년의 배합사료 수요 예측은 얼마큼 보고 계십니까?

**88년 배합사료 생산량 5%정도 증가 예상**

**김치영:** 금년의 배합사료 생산을 이야기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과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성장이나 여러 여건을 놓고 볼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증가폭에 대한 한계생산성이



▲김치영 과장

**88년의 배합사료 증가폭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료협회의 R&D(연구개발위원회)회의나, 회원사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88년의 배합사료 증가폭은 5%정도라고 잡고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축가 입장에서는 당초 750만톤 계획에서 900만톤까지 생산됐고 국제곡물가격도 하락해서 사료업체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량생산하게 되면 관리비나 생산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렇게 어려울때 사료값을 인하시켜 달라는 입장입니다.

**87년 5월까지 옥수수 80\$대에 구매**

**김정인:** 87년도의 사료가격 인하폭은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대강 평균 가격이 5~7% 사이입니다. 87년 1월에 비해 산란초기는 5.1%, 육계후기가 7.1%인하되었으며 기타사료는 인하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양돈사료가 5%, 육우사료가 5%입니다. 양축가들 사료값이 싼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사료업체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따라 인하를 불가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옥수수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87\$, 2월 85\$, 3월 86\$, 4월 85\$, 5월 84\$, 6월 87\$, 7월 99\$, 8월 100\$, 10월 94\$. 11월 99\$, 12월 103\$로 변화를 하고 있고 소맥도 15~20%가 인상됐습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면 달러화의 약세로 환치가 생겼다는 점인데 현재까지 환차를 감안 4%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격인상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축산환경이 좋지 못하여 인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3~4년전에는 현금판매에 서 지금은 외상판매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사료업체의 압박을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료산업은 성장을 했지만 사료회사의 채산성은 낮아진 결론입니다.

**사회:**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지금까지 인상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인데 낮은 가격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어떻습니까.

**배합사료 품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었다**

**김정인:** 가격 때문에 품질이 저하됐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즉 키타제도 같은 것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사료생산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86년에 비해 품질면에서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문제로 사료원료만이 수입이 개방되지 않아서이고 다음은 양축가들이 낮은 가격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품질개선이 사료공장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가격이 상승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소맥뿐 아

니라 기타원료가 20~40%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밀기울, 어분도 오르고, 중공에서 많이 들어오던 저렴한 원료로 가격유지를 해왔는데 중공이 저곡가 수출에서 고기수출로 전환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사료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 가축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를 하여 축산물가격은 낮아지고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양축가들이 많이 도산하며 경기 회복은 될지 모르지만 외상대금회수가 불가능해져 사료공장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배합사료 가격 안정 제도 장치 필요**

**김정인:** 국제원유가격은 소폭으로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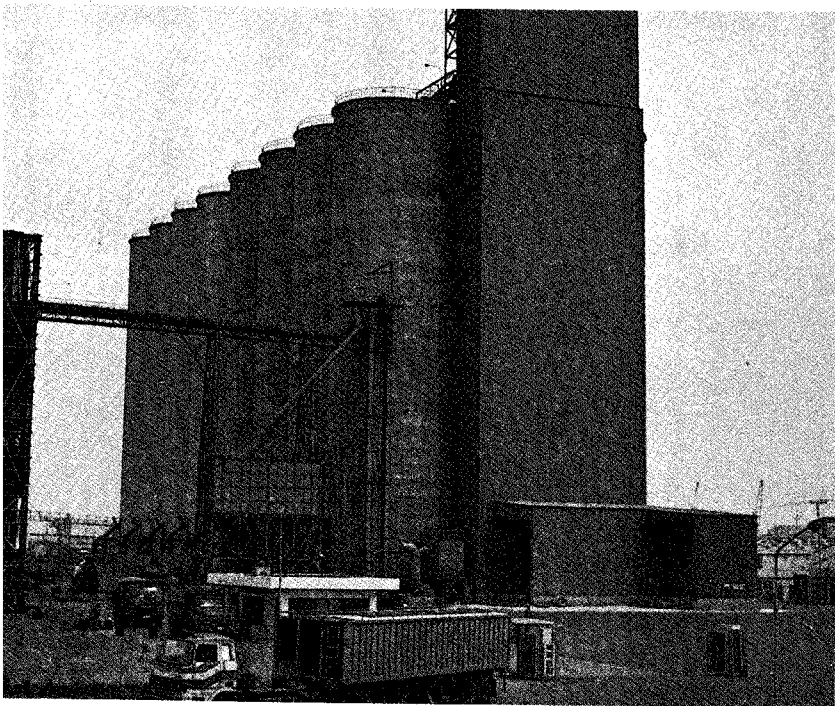
비제품가격은 인하를 시켰잖습니까 축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혀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사료원료가격이 눈에 띄일만큼 고가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없어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를 낮추든가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곡류사용규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사료배합표를 짜는데 있어 제약요인을 정부가 최대한 줄여서 배합사료가격을 조절하게끔 자율을 주어야 합니다.

**국산 곡류도 이중곡가제 적용했으면**

**김치영:** 사실 사료공장에서 국내산 옥수수 같은 것을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하지만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용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니까 사용을 꺼리는 것입니다. 애국적인 차원도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지 도산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정부가 이중곡가제처럼 실시하여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요인 많아**

**김정인:** 현재 국산 옥수수 수매량은 5만5천톤입니다. 1등 기준하여 355원인데 사료공장 도착가격이 41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입옥수수에 비해 약 4배정도가 비싸 도입 옥수수를 18만톤정도 더 도입하



(표 4) 옥수수 원료 현황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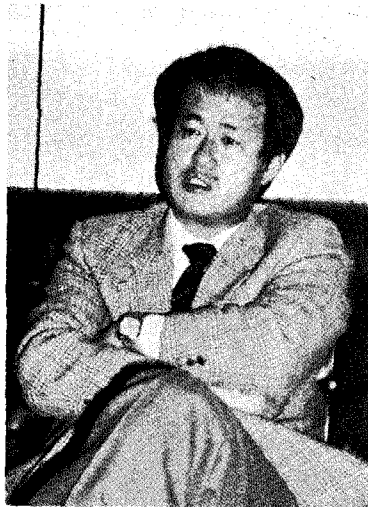
구분 년도	옥 수 수	
	국 산	도 입
'81	51,696	1,921,992
'82	40,435	2,353,023
'83	54,239	3,518,199
'84	37,908	2,380,287
'85	56,515	2,364,666
'86	56,319	2,802,103

는 것과 같은 가격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대만같은 나라는 사료원료로 쌀을 부셔서 옥수수가격의 9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쌀값에 사료원료를 구입해 닭고기나 계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리사용의 길 터놓아야**

**김치영:** 보리사용문제는 행정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를 사료에 넣었다해서 양축가나 소비자들이 사람 먹는 보리를 사료에 넣었다 할 사람은 없거든요. 이미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나 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금년에 알팔파가 10,000톤이 수입이 됐는데 풀도 수입을 하느냐 하는 견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료원료라고 생각하며 수입을 개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정인 전무

**배합사료 뿐 아니라  
단미사료도  
수입개방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 어려운 것 수입개방해야**

**김정인:** 알팔파 외에도 모든 원료가 수입개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소비자가 비싸면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중 개방하면 국내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가급적 개방을 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단미사료도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팔파의 경우 사료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 사들여 강제로 나누어 주니까 문제입니다. 알팔파를

중계사료, 소사료, 특수사료, 돼지사료에 쓰면 효율적인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수입자유화 시키고 수입량을 제한하면 다음은 업체에서 알아서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골분이나 인산칼슘은 수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국내산업에 영향이 없는 방향에서 수입이 되면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회:**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인:** 사료산업은 원료구매에서 지면 판매가격에서도 지니까 중소기업은 자구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협동조합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업체를 주도하는 곳이 사료협회와 축협인데 88년에도 이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소공장의 공동구매 필요**

**김치영:** 사료공장이 점차 커지면서 개별공장들이 경제물량을 확보해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심체 형성이 필요해 집니다. 구매에서도 개별 중소기업체로는 풀리해지므로 공동구매를 위해서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다음은 금년의 사료업체흐름의 전망과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육계사료에 펠릿사료 보편화**

**김정인:** 사료산업은 성장산업이긴

하지만 성장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톤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내년에도 950만톤 생산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1,000만톤 시대가 오는데 우리나라 축산업이 1,300~1,400만톤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중지되는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특수한 성격을 띤 소량생산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항이라면 87년은 펠렛 사료가 양계업계에 퍼진 해였다는 점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형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5년에 6

%였던 것이 87년에는 20~30%가 펠렛사료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특히 브로일러는 70%정도가 펠렛사료로 바뀌었습니다. 사료공장들도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탈출구를 만들기 시작하여 품목의 다양화나 신규설비를 많이 하였고 특수사료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사료 개발에 노력한 한해이었다.**

**사회:** 사료산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격의 안정내지 값싼 고품질 사료의 공급은 생산자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여건개선만 실시된다면 보다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시기상 모든 인식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했던 시정사항들이 금년에는 생산자나 사료업계의 단합된 노력으로 해결하여 축산업 발전에 터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점을 양측가들도 두분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중추·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육성계 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농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612번지  
 전화 : (0347) 62-4339  
 대표자 : 이 오 형